

5월 4일 이후 대면 수업 관련 안내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확진자 수가 연속하여 10여명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자, 무증상 감염자, 재확진자, 집단감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14일의 공지에서 5월 3일(월)까지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5월 4일(월)부터 '대면수업(출석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완화된 형태로 시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2020.4.24.)에서 결정한 학사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안내 사항〉

▶ 이론 강의는 별도의 안내가 있기까지 온라인 수업 진행 **(상황 변경 시 1주 전 안내)**

▶ 2020.4.20.(월)부터 실험·실습·실기 강좌에 대하여 출석 수업 일부 진행 **(시행 중)**

▶ **2020.5.11.(월) : 부분 등교 출석 수업 가능**

(25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대면수업 시행 가능)

등교하는 모든 학생은 본교 '선별진료소'(위치: 솔로몬광장)에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철저히 준수
(기타 세부사항은 “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확진자 발생 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코로나-19 정부 지침 및 상황 변경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가능

2020.4.27.

삼육대학교 교무처장